여의도 하스팟

이미 병약했던 미국 증시 (이란 사태)

Analyst 하장권 research.ha@hmsec.com

결국 이란 공습한 미국과 이스라엘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 시행. 뒤이어 지난 1일엔 이란 정부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 주말에도 개장됐던 비트코인은 지난 단기 저점 돌파 시도 이후 낙폭을 축소했으며, 2일 개장한 미국 증시도 -1%대 하락 출발했으나 낙폭을 축소하며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마감에 성공

이미 단기간 3차례 가까이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 부각되어 왔으며, Polymarket 상 미국의 이란 침공 가능성이 이미 과반을 넘기며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었음. 무엇보다도 AI 랠리 주도했던 기존 주도주가 저렴해져 있는 미국 증시. 대형주 내 AI 유니버스 멀티플 프리미엄은 5년래 최저치 경신한 상황. 결국,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 과거 중동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평균적으로 15일 이내의 단기 변동성에 그쳤던 경험

시장은 이번 공습을 단기적 이슈로 치부고 있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큰 리스크. 지금까지의 미국 증시가 AI 혁신에 더불어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중첩된 랠리라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따른 유가 상승은 곧 연준의 양대 책무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

다만, 리스크 프리미엄 더해지며 단기적으로 유가 상방 압력 불가피하겠으나 시장은 빠르게 이번 공습을 단기적 이슈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음. 유가도 2일 개장 직후 10% 넘게 상승폭 확대한 이후 상승폭 축소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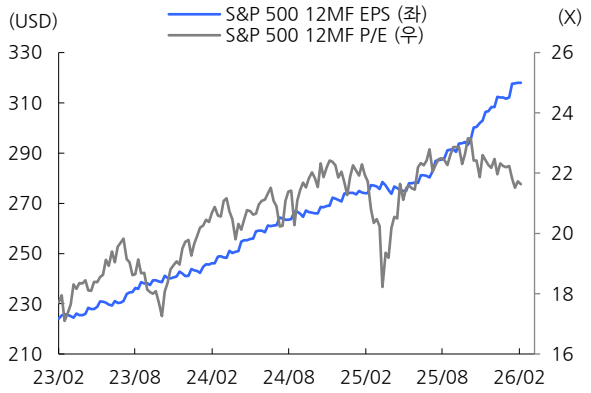
① 지난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의 정치적 배경은 다르지만, 결국 유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공통점. 다만, 이란의 생산량은 베네수엘라의 3배 수준에 달하며, 지리적으로도 중동에 위치하여 공급 리스크 유발하기 쉬움. 그렇기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관리가 최우선 과제인 트럼프에게 전쟁 장기화는 배제된 시나리오일 것. 트럼프 역시도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는데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주일 안에 모두 제거했다 언급해 기존 언급한 최장 4주라는 시간 역시도 단축될 공산이 높음

② 이미 이란은 작년 6월 미국의 '미드나잇 해머' 공습으로 이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공망이 완전히 재건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란 자체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경제적 압박이 동반되기에 출혈 불가피

③ 레바논 정부 역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군사 활동을 금지한다 발언하며 계속해서 중립 입장 표명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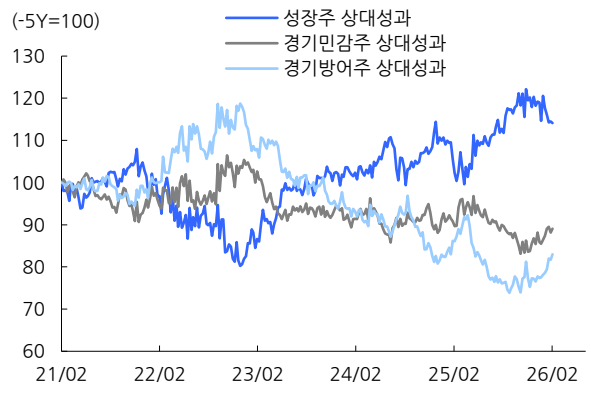
④ 미국의 이란 공습에 뒤이어 OPEC+ 회원 8개국은 생산량을 조정해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4월 이후 단계적 증산 합의하며 하루 20만 6,000만 배럴 추가 증산 결정. 이는 시장 예상치인 13.7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23년 4월 발표했던 자발적 감산이 일부 또는 전부 복원될 수 있다고 밝히며 추가 증산의 여지도 남겼음

〈그림1〉 BM 밸류에이션 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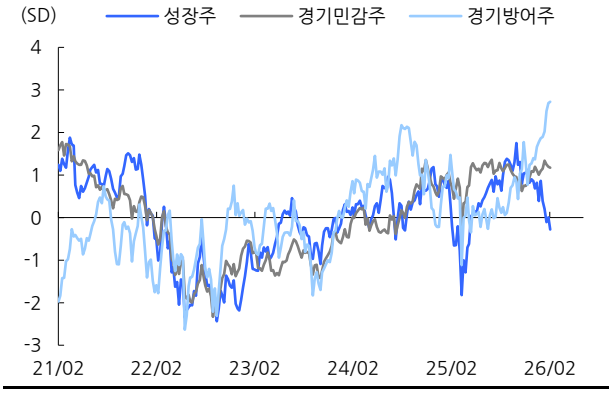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2〉 3개월 넘게 지속됐던 성장주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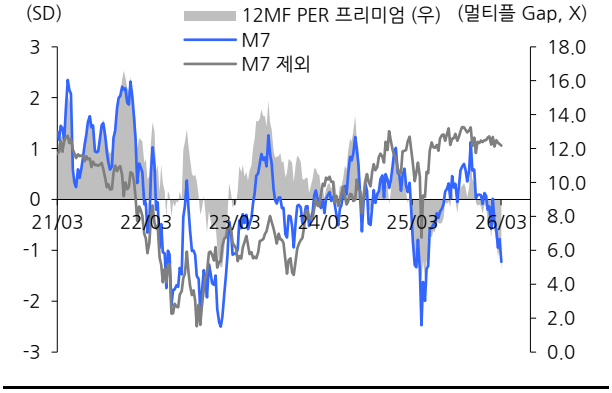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3〉 비싸다면 오히려 방어주가 비싼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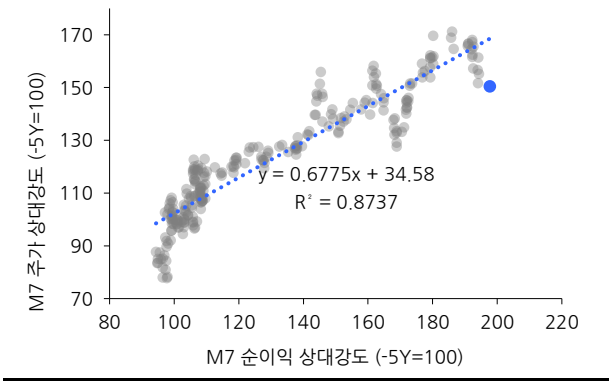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4〉 M7 밸류, 작년 해방의 날 이후 가장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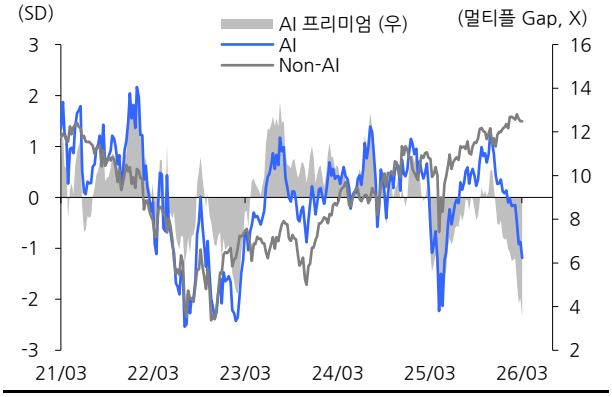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5〉 M7 순이익 상대강도vs. 주가 상대성과 산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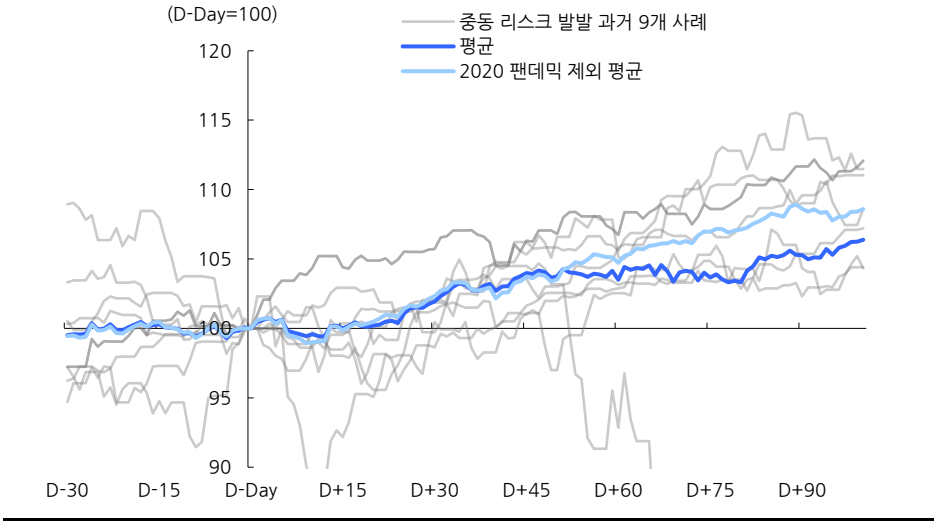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6〉 대형주 AI 유니버스 프리미엄, 5년래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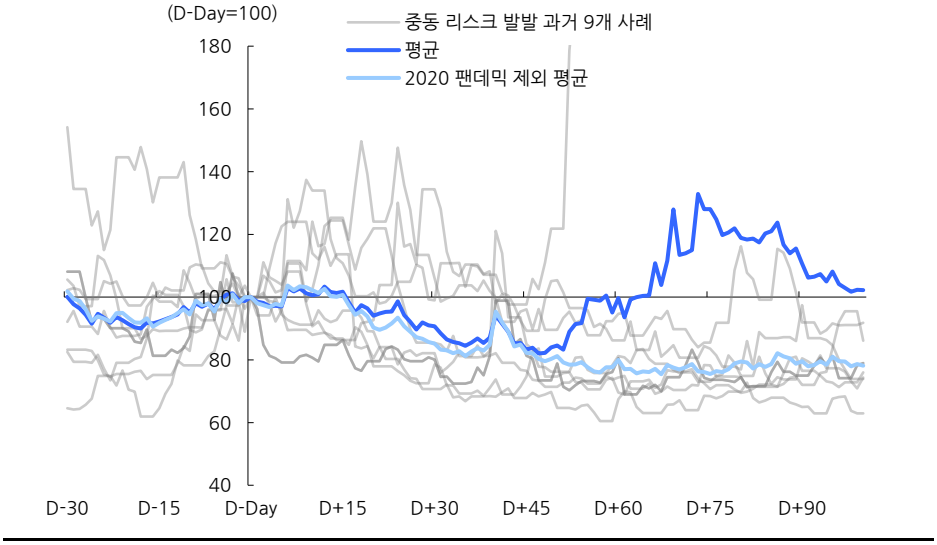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7〉 중동 리스크 발발 과거 사례 S&P 500 지수는 2주 내외의 조정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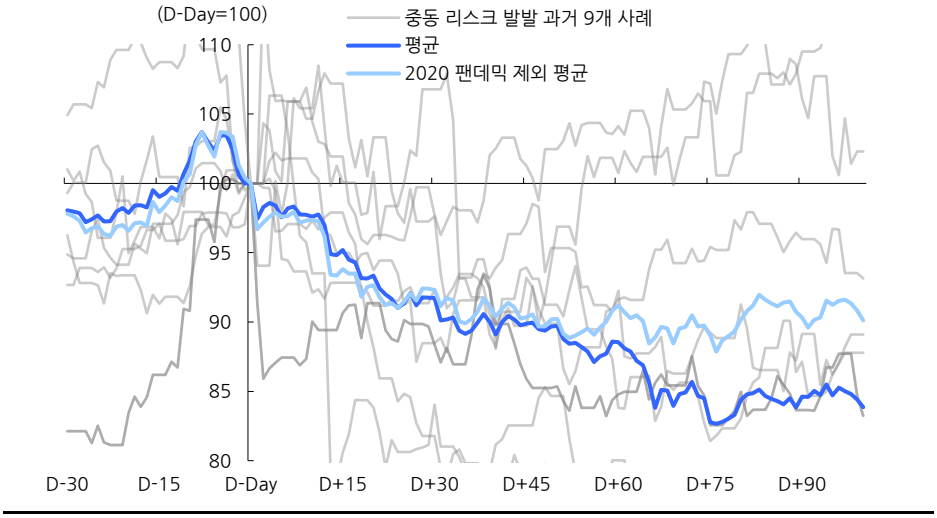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8〉 VIX 지수 역시 평균적으로 2주 내외로 안정화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9〉 WTI 유가, 지정학 리스크를 평균적으로 선반영하는 경향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하장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